

‘장애인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정읍’ 실현

정읍시가 장애인 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올해 장애인복지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정읍시의 장애인 인구는 약 9,700여 명으로 전체 시 인구의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평균(5.0%)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장애인 복지 인프라를 확대하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18억원 증가한 364억원으로 편성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복지시설 확충, 평생학습 지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다방면에서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정읍 장애인의 날 기념식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맞춤형 교육 환경 조성

시는 올해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공모에 신규 선정됐다. 이는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국비 5,000만원을 확보하고, 시 예산을 포함해 총 1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활용해 ‘정읍형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해 장애인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화프로그램 통해 평생학습 환경 조성
발달재활서비스 통해 장애아동 재활 지원
장애인연금 지급... 중증장애인 생활 안정
일자리사업 규모 확대... 총 156명에 제공
곰두리스포츠센터 통한 건강 증진 도모



곰두리스포츠센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편의시설 확대

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부터 전동보장구(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전동보장구 사용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사용 중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 피해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는 전동보장구 이용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도 함께 고려한 정책으로 보다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기기 지원 품목을 기존 42종에서 44종으로 확대했다. 추가된 품목은 장애인들의 이동과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16대를 추가 설치해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했다.

이밖에도 소규모 근린생활시설(300㎡ 미만) 주 출입구에 이동편의 경사로 설치 지원을 확대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였다. 더불어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의 기능 보강을 위해 총 1억 8,000만원을 투입해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다.

▲발달장애아동 지원 확대... 바우처 최대 34만원

시는 지난해 8월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7세 이하 장애(예견) 아동에게 월 최대 9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25만원(정부 지원금 포함)에서 34만원의 바우처가 제공된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언어재활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등 장애아동의 발달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시는 이

를 위해 총 8,300만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했으며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인 재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확대

시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1인당 최대 43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지원대상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138만원, 부부가구 220만원으로 상향해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아동)수당은 지난해 2,100여명에게 16억원을 나눠 지급했다. 또한, 월 10회 이상 혈액투석을 받는 중증 신장장애인(200여 명)에게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해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 편의를 높이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장애인 사회참여 및 소득 보장을 위한 일자리 확대

시는 올해 장애인 일자리사업 규모를 확대해 총 156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10명(7%) 증가한 수치다.

분야별로는 △일반형 일자리(46명) △복지일자리(75명) △특화형 일자리(9명)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26명)이다.

특히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을 통해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 장애인식 개선 활동, 문화예술 활동 등을 지원하며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앞서 시와 수행기관은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선정을 마쳤으며 장애인들이 개인 역량을 발

휘할 수 있는 기회와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한 종합장애인복지관 및 곰두리스포츠센터 운영

시는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장애인복지관에서 총 124개 사업을 운영하며 이를 위해 총 2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장애인의 재활운동과 체력 단련을 돕는 ‘곰두리스포츠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곳은 △체육관 △체력단련실 △재활운동실 △탁구장 △당구장 △스크린파크골프장 △목욕탕 등을 갖추고 있으며 1일 평균 170여명의 장애인이 다양한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설치된 스크린파크골프장 프로그램 이용을 확대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